

민초단과 반민초단

여러분은 ‘민초단’ 또는 ‘반민초단’ 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? ‘민초단’ 의 ‘민초’ 는 ‘민트 초코’ 를 뜻하고 ‘단’ 은 ‘방탄소년단’ 이나 ‘합창단’ 처럼 모임이나 단체를 뜻합니다. 정리해보면 ‘민초단’ 은 민트 초코 (이하 민초)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 모임을 가리키고 반(反)민초단은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마치 치약을 먹는 것 같은 상쾌한 민트와 달콤한 초코의 만남! 듣기만 해도 사람에게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. 사실 민초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일본에서도 민초에 대해 한국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지요^^

한국의 민초단은 민초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민초를 먹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. 이에 대해 반민초단은 민트와 초코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조합이라고 말하면서 둘의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.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얼마 전 처음으로 민초를 먹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. 하지만 또 먹을지는.. 그건 잘 모르겠어요^^;; (아직 민초단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..ㅋㅋ)

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도 실제로 요리해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민트와 초코처럼 우리도 새로운 화합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? 민초단과 반민초단으로 나뉘서 싸우기보다는 서로의 미각이 다른 것을 이해하면서 맛의 세계를 넓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참고로 민초의 좋은 점은 한국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할 주제가 없을 때 ‘민초단이세요?’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상대방이 민초를 먹어본 적이 없다면 같이 먹어보면서 친해지는 것도 좋겠죠? 민초단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칼럼을 마칩니다^^ 오늘도 민초처럼 상큼하고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!^^

최은경 (나가사키외국어대학교)